

제주 국제 환경플러스 포럼 2025

글로벌 세션



유럽연합(EU)의 플라스틱 전략과 국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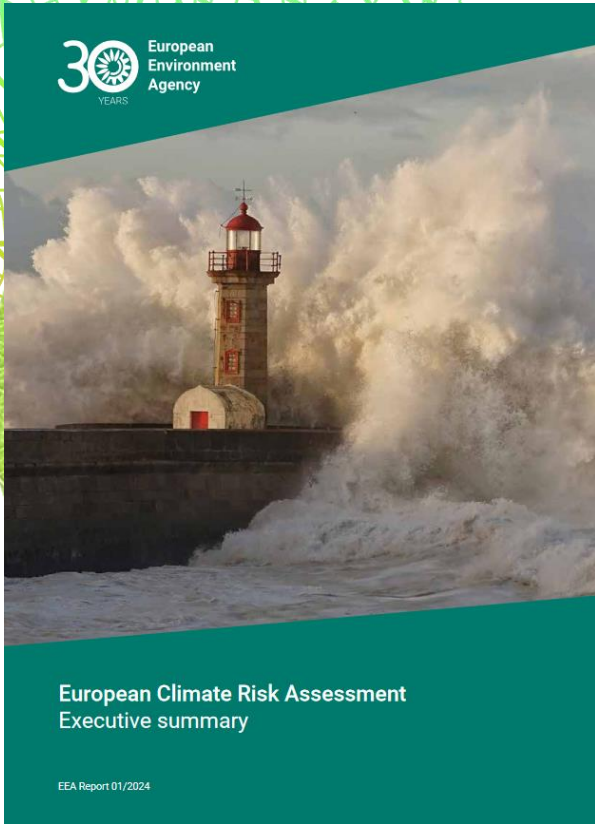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이종한 기후환경 정책담당관

2025년 7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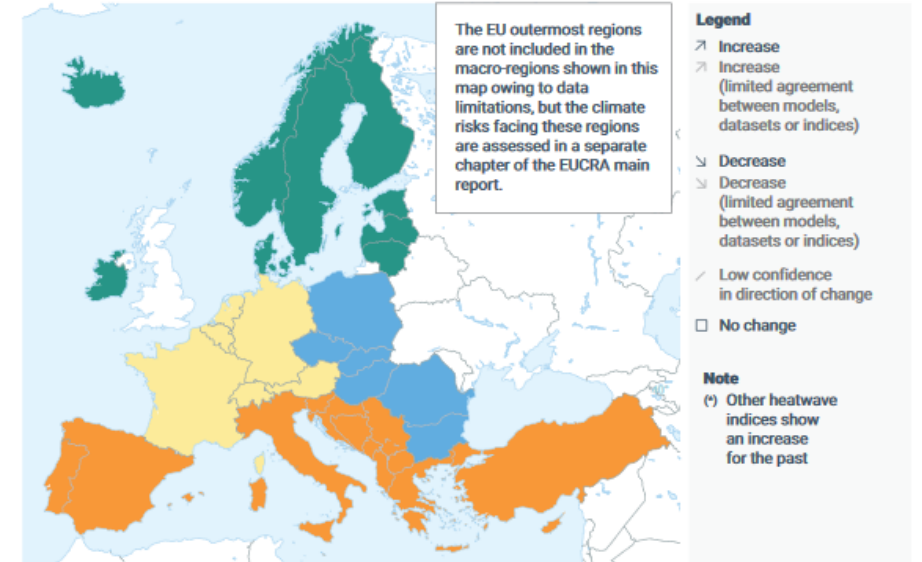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위기 : 유럽 및 세계 기후 위험



EU 최초의 제1차 유럽 기후위험 평가 보고서 발표('24.3월)

- 유럽은 글로벌 평균보다 2배 빠르게 온난화 진행
-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 시나리오에서도 유럽은 3도 이상 온도 상승 예상

Land regions	Northern Europe			Western Europe			Central-eastern Europe			Southern Europe			European regional seas		
	Past	Future		Past	Future		Past	Future		Past	Future			Past	Future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Mean temperature	↗	↗	↗	↗	↗	↗	↗	↗	↗	↗	↗	↗	Sea surface temperature	↗	↗
Heatwave days	□(*)	↗	↗	↗	↗	↗	↗	↗	↗	↗	↗	↗			
Total precipitation	↗	↗	↗	↗	↘	↘	↗	↗	↘	↘	↘	↘	Sea level	↗	↗
Heavy precipitation	↗	↗	↗	↗	↗	↗	↗	↗	↗	↗	↗	↗			
Drought	↗	↘	↘	↗	↘	↗	↗	↘	↗	↗	↗	↗			





기후변화 대응 EU 전략 : 유럽 그린딜



“

유럽은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도 가장 먼저입니다. 유럽은 혁신, 투자, 사회적 보상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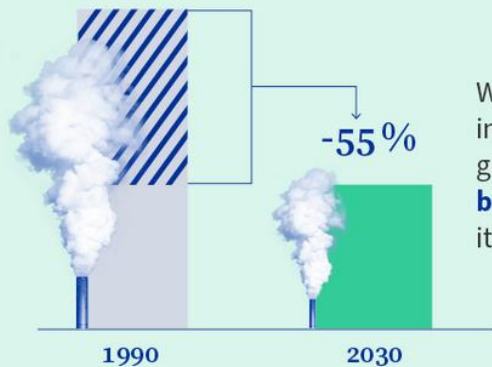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유럽 그린딜 : 2050 기후중립을 향한 목표

What the EU pledged



With the launch of the **European Green Deal** in 2019, the EU committed to cutting its net greenhouse gas emissions by **at least 55% by 2030**, compared to 1990 levels, up from its 40% commitment in 2014.

The EU's end goal is to reach **climate neutrality by 2050**. This will require a transition which should:



require action from **all sectors of the economy**



be **socially balanced and fair**



preserve the EU's **competitiveness**

- EU는 2050년 기후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는 중간목표를 설정
- 2025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2040년 90% 감축목표를 담은 유럽 기후법 개정안을 제출





2030년 기후목표 달성계획 :

‘Fit for 55’ 입법패키지



탄소국경 조정제도 (CBAM)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개정



신재생에너지 지침



ReFuelEU 항공규정



FuelEU 해운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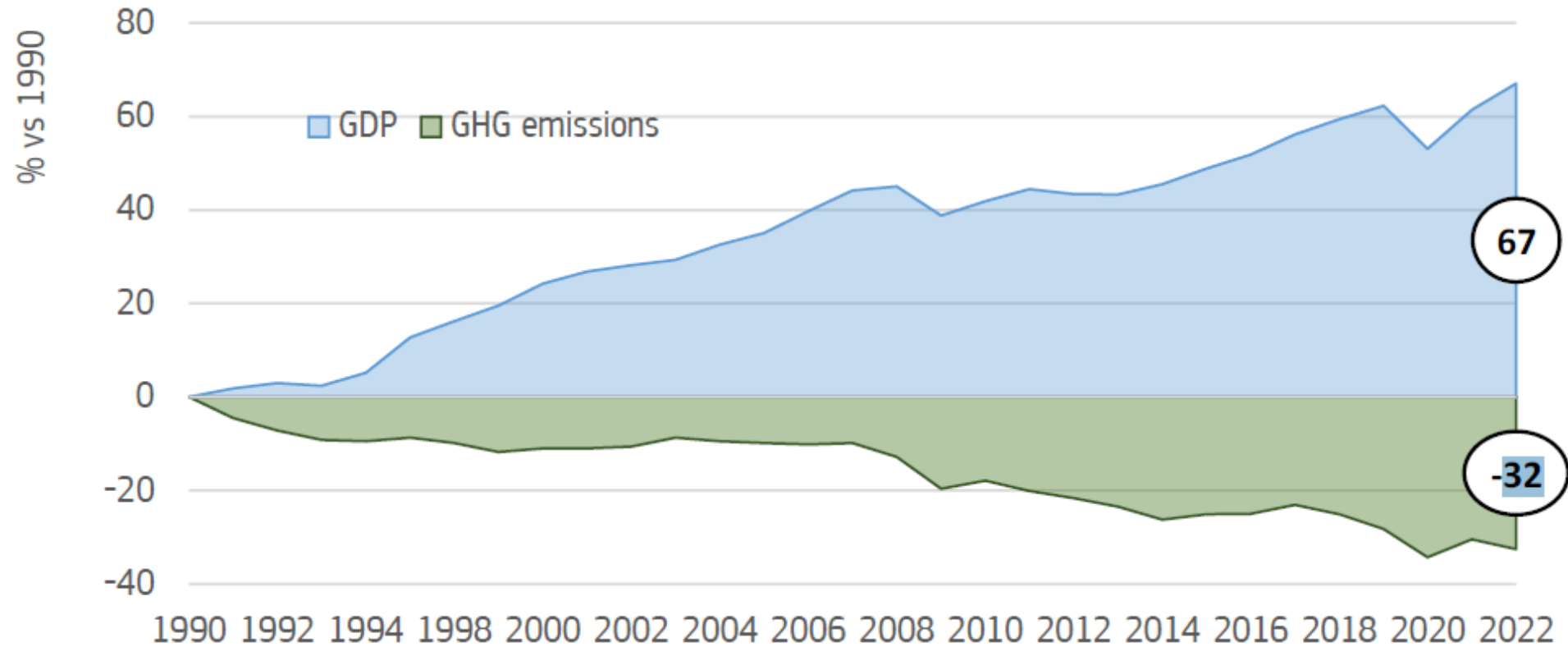
사회 기후기금

- 2021년 채택된 유럽 기후법을 통해 EU 기후목표를 법령화
- EU의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포괄적 ‘Fit for 55’ 입법 패키지를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법령을 마련



EU의 2050년 기후중립 달성 현황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경제성장의 디커플링





순환경제 전환이 제시하는 기대효과

- **녹색 및 회복탄력성**
있는 밸류체인 촉진



- **자연보호:** 자원부족,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대응



- **고용 창출:** 폐기물
관리, 디지털, 재료혁신
분야 등

- **오염 및 폐기물 감축:**
비용 저감 및 신규
수입원 창출



‘Fit for 55’ 입법패키지 : EU 순환경제 및 플라스틱 전략



기후중립, 자원효율,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경제 전환



제품/재료/자원의 가치를
시장에서 최대한 오래 지속,
폐기물 발생 최소화



플라스틱 폐기물 및 투기
감소, 플라스틱 재활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제구조 변화



EU의 순환경제 전략 및 정책 : 순환경제 행동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EU 시장 내 지속가능 제품의 규범화
소비자 및 공공분야 구매자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제품생산 프로세스

폐기물 감소
폐기물 수출 감축
2차 원자재 질적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장구축 촉진



35개 행동계획

전자제품 및 ICT
배터리 및 차량
포장
플라스틱
섬유
건설 및 건물
식품, 물, 영양소

플라스틱은 EU 순환경제
행동계획의 중요 요소



EU의 순환경제 전략 및 정책 : 순환경제 행동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순환경제 행동 계획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 혁신을 위한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시 (섬유, 식품/포장,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각각의 부문에 대한 조치를 포함)

TEXTILES



Worldwide, a full truck of **textiles** is sent to incineration or landfilled every second.

It is estimated that less than 1% of all textiles worldwide are recycled into new textiles.



Driving new business models will boost sorting, reuse and recycling of textiles, and allow consumers to choose sustainable textiles. Ecodesign will apply to a broader range of products: clothes will be made to last longer.



FOOD and PACKAGING



In 2017 packaging waste reached in Europe a record of **173 kg per inhabitant**.



New legislative initiatives on reuse to **substitute single-use packaging**, tableware and cutlery by reusable products in food services, as well as targets for reducing packaging waste will be proposed.

PLASTICS



Consumption of plastics is expected to double in the coming 20 years.

By 2050, plastics could account for 20% of oil consumption, 15%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re could be more plastics than fish in the ocean.



Single-use products will be **phased out** wherever possible and replaced by durable products for multiple use.

Acting on microplastics - restricting intentionally added microplastics, increasing the capture of microplastics at all relevant stages of the product lifecycle.



WASTE



Each citizen produces nearly **half a tonne of municipal waste per year**.



Measures will be introduced for **waste prevention and reduction**, increasing recycled content, minimising waste exports outside EU. An EU model for separate collection and labelling of products will be launc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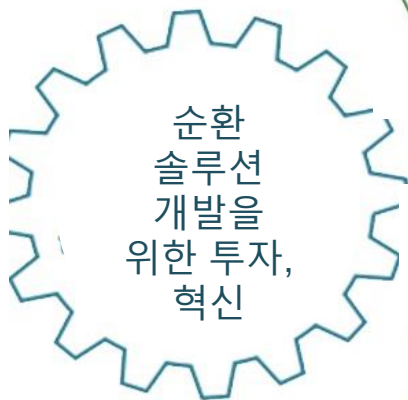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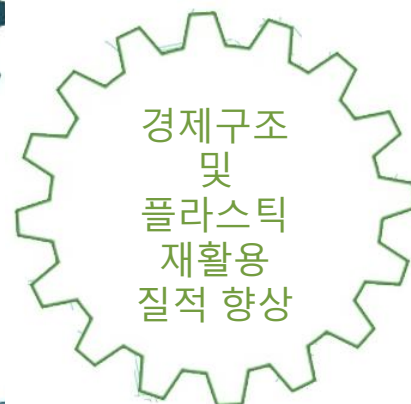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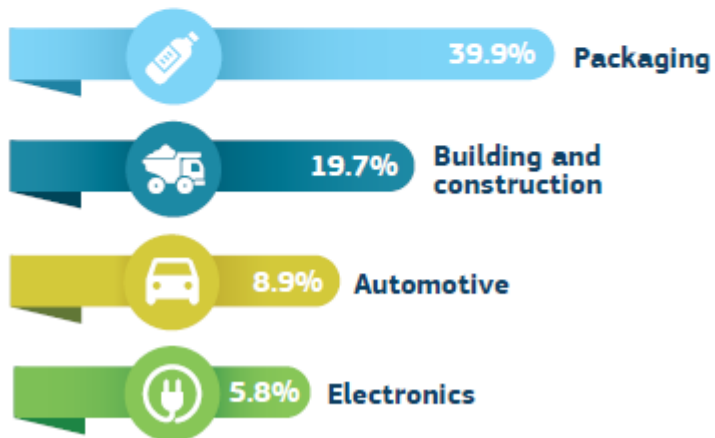


EU의 순환경제 전략 및 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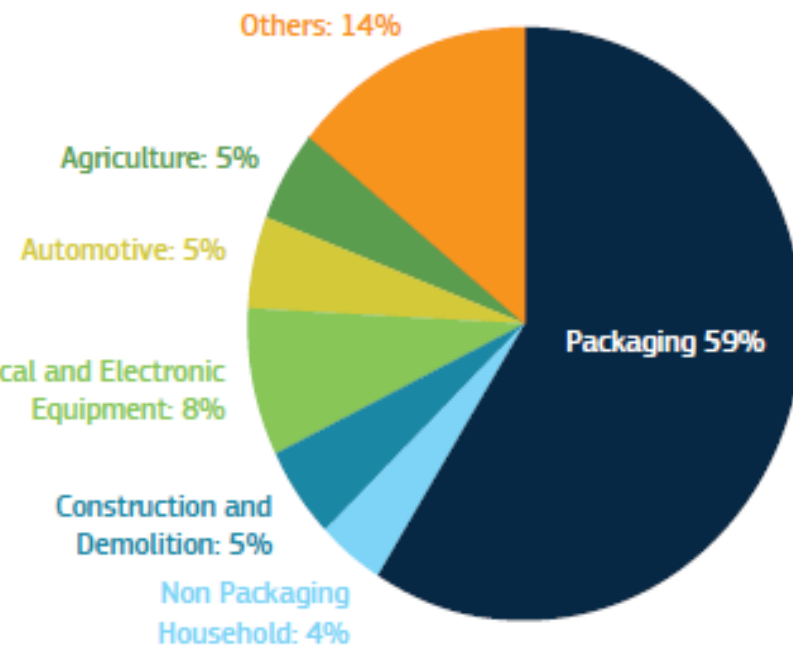
EU 플라스틱 전략

유럽 플라스틱 수요
(’15년, 부문별 비중)

49 million tonnes



유럽 플라스틱 폐기물
부문별 비중(’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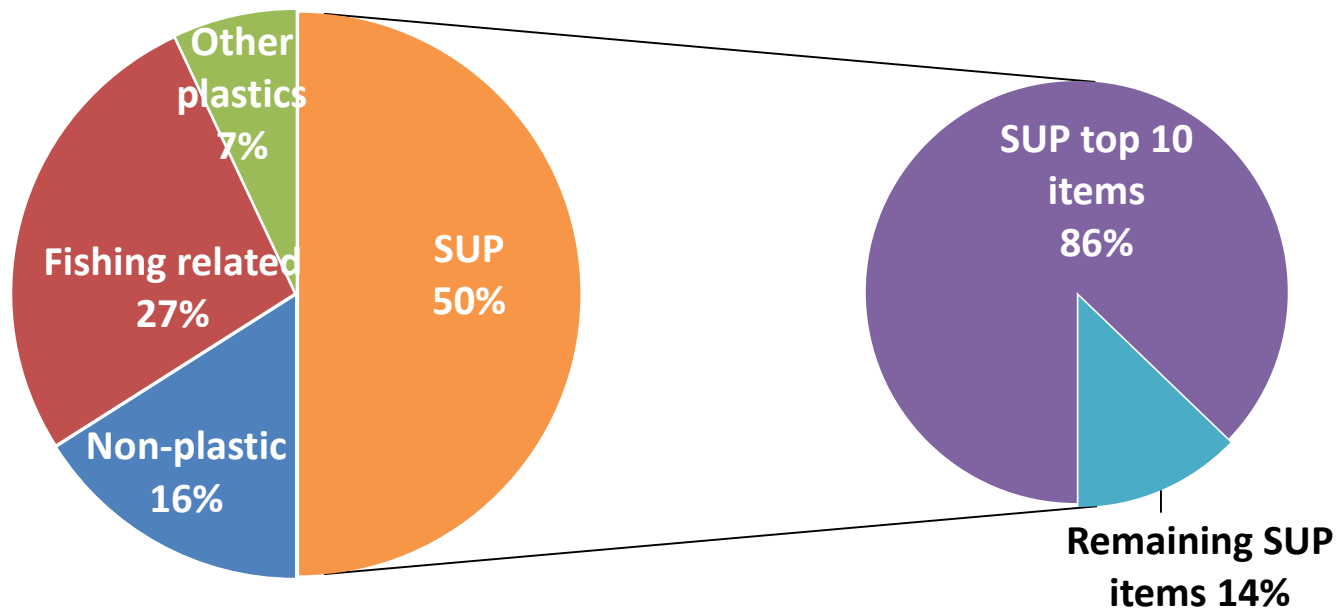
Eunomia (2017)



EU의 순환경제 전략 및 정책 :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

- SUPD는 유럽 해안가에서 수거되는 플라스틱의 70% 이상을 다룸 :
상위 10개 품목 SUP(43%) + 폐어구(27%)



SUPD: **플라스틱병** 수거 및 재활용 목표

수거 : 77% (~'25년) / 90% (~'29년)

재생원료 비율 : 25% (~'25년) / 30% (~'30년)



SUPD 외 기타법령 : **포장, 차량, 건설자재** 등 주요 제품군에 대해 의무규정을 명시한 법안 마련





EU의 순환경제 전략 및 정책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목 표 :

- 포장폐기물 방지 및 감축
- '30년까지 EU 시장의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토록 조치
- 새 자재 사용량 감축 / 재생원료 사용 증가
- 2050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추진



이 행 :

PPWR의 세부 규제사항은 포장 관련 단일화 표준, 가이드라인 및 관련 위임 법안의 채택 및 이행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및 생분해성 &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목 표 :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경제에 아래를 통해 기여

- 해당 소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 플라스틱 소재들이 진정한 환경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명확한 분야 및 조건을 제시
- 국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책, 구매, 투자결정에 대한 지침 제공
- EU 역내 생산 및 사용에 대한 공통된 이해 촉진, 회원국간 격차 / 시장 분열 방지

법 률 : 현재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생분해성 &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EU 법률은 없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EU ‘통신문(Communication)’을 통해 해당 플라스틱 소재의 생산 및 소비의 전반적인 환경 영향이 긍정적일 수 있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



**Communication
Nov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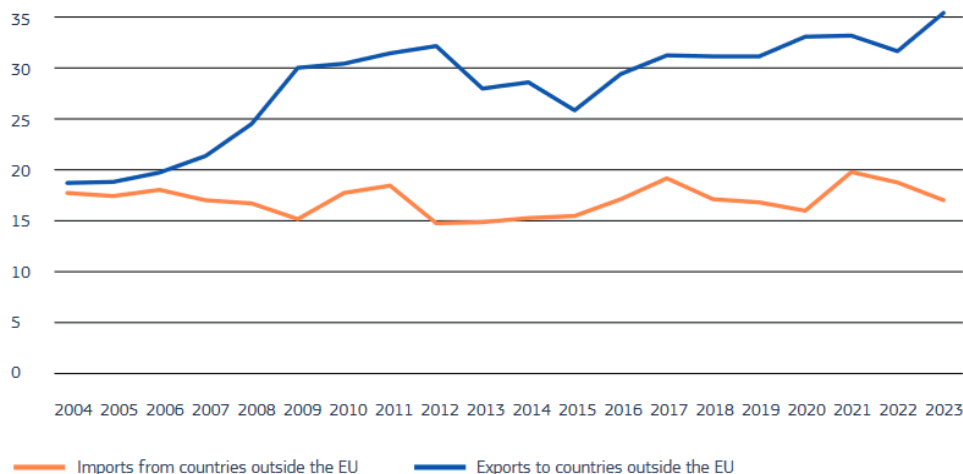


EU의 순환경제 전략 및 정책 :

EU 폐기물 운송 규정

EU 폐기물 운송 규정을 통해 EU는 환경 및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EU 역내 및 국경 밖 폐기물 운송에 대한 규정을 마련

The European Union's exports and imports of waste
(million tonnes)



Exports in 2023:
35.1 million tonnes
Value:
approx. € 18.5 billion



Imports in 2023:
17 million tonnes
Value:
approx. € 15.7 billion

Third country benefits...

Environmental

- Reduction of the amount of waste not managed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 Greenhouse gases and other harmful emissions reduced due to a proper and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waste.
- Promotion of waste recycling and its use as secondary material will also reduce other environmental emissions and contribute to energy savings and the protection of virgin resources.
- Industries relying on imported waste as feedstock shifting to domestic waste as a new source of production which may lead to better collection and treatment of such domestic waste.

Economic and social

- New EU requirements for exports of waste incentives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modern waste management systems and technologies, generating economic gains.
- EU requirements leading to more attention being paid to the collection and treatment of domestic waste which may replace imported waste.
- Positive impacts on the health of waste workers and communities.
- Possible decrease in import of certain waste streams from the EU, with consequences on industries processing them.



유럽연합(EU) 녹색외교

- EU는 글로벌 차원의 도전과제(예: 기후위기)를 명확히 인식
- EU는 앞으로도 계속 수입에 의존할 예정



접근법:

- 다자간 협력체계에서 국제 리더십 발휘 (COP, OECD, WTO 등)
- EU의 글로벌 금융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 자유무역협정 (무역 및 지속가능개발 chapters)
- 협력국과의 양자간 그린파트너십/얼라이언스



EU-한 그린파트너십



“EU와 대한민국은 기후중립 미래라는 공동의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 파트너십 출범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 분야에서의 통합을 추진하고 전략적이고 깨끗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공급망, 경쟁력, 그리고 지구에 모두 이롭기 때문입니다.

- 파리협정 이행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 깨끗하고 공정한 전환
- 생물다양성 및 산림
- 순환경제 및 오염
- 제3국과의 공동 협력

▶ 그린파트너십 이행 지원을 위한 EU사업 운영 (4개년 사업, 2024-2028)

예산 / 기간

4 백만 유로
2024 - 2028

협력대상

대한민국 이해당사자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목 표

- 파트너십 강화
- 공공외교 추진



국제 플라스틱 협약



- 제5차 UN 환경총회서 역사적 결정
- 정부간 협상위원회의 성공적 설립
- 당사국간 합의는 해양 환경을 포함하여,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 순환경제 접근법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촉진해야 함
- 8월 제네바 개최 예정인 INC-5.2에서 최종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



감사합니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